

비하인드스토리 I 에서 이어지는 비하인드스토리 II 를 공개합니다.

병원에 산업재해환자들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마찬가지로 소속 공무원들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건을 심사검독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2014년 6월), 자신들을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사 소속 조사팀이라고 신분을 밝힌 5인의 전직 간호사분들이 병원에 나와서 지난 5년간의 진폐환자 진료비 청구내역을 5일만에 걸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소위 '부당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는 진료비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이에 대한 과징금 등, 병원에 지급되어 직원월급 등으로 소중하게 쓰여야 할 10억원 가까운 요양급여를 강제 징수하여 갔습니다.

영남의료재단 대표자는 이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법원에 강제환수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힘든 싸움을 시작하였고, 결국 사건 발생후 거의 2년이 지난 2016년 5월 12일자로 부당한 진료비청구는 없었으며 피고의 징수결정이 모두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478진료비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병원운영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고 승소 판결문은 이미 병원이 사라진 이후에 받아든 허무한 종이쪽지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현장조사 공무원들 5명은 징수실적을 높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피감기관인 병원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이러한 공무원들의 횡포 사례는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자 말아야 하겠기에 서정익 박사님이 세운 영남의료재단 역사에 비하인드스토리 II로 분명히 남기고자 합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사 조사팀

- ☞ 팀장 이진숙
- ☞ 팀원 권수영
- ☞ 팀원 서세희
- ☞ 팀원 김도연
- ☞ 팀원 박은희

